국내
마감시황

2026.4.30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유가 상승에 증시 하락 전환

외신, 美 중부사령부가 이란 공습 계획을 트럼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
전력설비, 전선, 태양광 관련주 상대적 강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598.87pt (-1.38%)	1,192.35pt (-2.29%)	992.15pt (-1.43%)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88.50 원 (+15.3 원)	3.9230% (+8bp)	7,159.25pt (-0.12%)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11,877 억	+5,530 억	-408 억
외국인	-14,624 억	-2,164 억	+4,446 억
기관	+2,837 억	-3,045 억	-4,003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전강후약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밤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현재 금리 수준이 상황을 지켜보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12명 중 9명은 다음 금리 방향이 인하라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3명의 연준 위원들은 성명서에 완화적 문구가 반영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금일 새벽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견조한 AI 수요가 확인된 동시에, AI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며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AI 모멘텀에 힘입어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으나, 장중 미국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에 유가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증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약 30% 상승한 점도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이날 KOSPI는 1.38%, KOSDAQ은 2.29%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34.7조원, KOSDAQ은 약 15.2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1조 5천억원 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기계/장비와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에서 3천억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IT 서비스와 건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유가 지속에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전력설비와 전선 업종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던 반도체주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2차전지, 자동차, 건설, 바이오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산일전기(+20.36%), 대한전선(+9.96%), 한화솔루션(+5.74%)이 올랐고, GS건설(-8.75%), 현대오토에버(-4.96%), 삼성전자(-2.43%)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